



제목	100Kilims: Masterpieces from Anatolia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Alexandria Press Ltd.
발행일	1991. 10. 31.
저자	Yanni Petsopoulos
출판도시	London
페이지수	184
ISBN 또는 ISSN	978-1856690119

내용 요약

이 책은 터키의 아시아 지역인 아나톨리아에서 직조된 100개의 엄선된 킬림 작품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킬림(아제르바이잔어 : Kilim کليم, 터키어 : Kilim, 투르크멘어 : Kilim, 페르시아어 : کليم gelim)은 오스만 제국, 이란, 중앙아시아의 아제르바이잔 및 투르크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생산된 평평한 태피스트리로 짠 카펫 또는 깔개이다. 킬림은 원래 순전히 장식용이나 기도 양탄자로 사용되었는데, 현대의 킬림은 서양 가정에서 인기 있는 바닥 깔개로 사용되고 있다. 킬림이라는 용어는 페르시아어 겔림(کليم)에서 유래한 것으로 몽골어로 '거칠게 퍼져 나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파일(pile) 카펫과 마찬가지로, 킬림은 고대부터 생산되어 왔다. 킬림은 직조시 날실과 씨실을 촘촘하게 엮어서 파일이 없는 평평한 표면으로 직조된다. 킬림의 직조는 태피스트리 방식이며, 기술적으로는 씨실이 드러나는 평직(weft-faced plain weaves) 즉, 수평의 씨실 가닥이 단단히 아래로 당겨져 수직의 날실을 숨기는 기법이다. 눈에 보이는 디자인과 색상을 지닌 씨실 가닥은 거의 양모이며 반면에 숨겨진 날실 가닥은 양모 또는 면직물이다. 날실 가닥은 끝 부분에서만 보이며 프린지로 나오고, 이 프린지는 일반적으로 묶음으로 묶여있어 찌는 것을 풀거나 또는 풀지 않음으로써 만들어진다.